

「미래의 직업세계 2003」 발간의 의의



유 성 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원
sjyou@moe.go.kr

1.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의 발간 배경

얼마 전 미국 노동부 전 여성국장이었던 한 인사는 “현재 5세 어린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전체 직업의 90%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직업의 급격한 생성, 소멸의 원인으로 정보통신산업과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을 손꼽았다. 한편 세계경제가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변화하고, WTO, EU 등의 출범으로 자본은 물론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의 국가간 이동도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선진 각국은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인력 확보에 국운을 걸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 변화가 진행되고 세계화된 지식기반 경제에서 보다 적응력 높고 경쟁력을 갖춘 인적

자원의 개발은 개인에게나 국가차원에서도 향후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이다.

개인은 자신의 직업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미래의 직업에 대한 전망을 근간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와 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능력을 쌓는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한편 정부는 직업 및 진로에 있어서 개개인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투자 수익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 특정직업의 전망 등에 대한 교육 및 노동시장 관련 정보의 생성하고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은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학생 또는 구직자에게 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향후 전망 및 관련 학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2. 「미래의 직업세계 2003」 발간의 의의

가. 평생학습 지원 인프라로서 종합인력정보서

통계 인프라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하는 작업이고, 작업기간도 짧은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으나,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은 실제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교육과 노동시장이 상호 연계·통합된 종합인력정보서라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은 직업의 개요, 필요한 교육훈련, 고용 및 임금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하여 직업정보서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전문대학·대학교 졸업생의 학과별 진출 직업, 소득수준, 학과 전망 등을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정보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학력수준,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교육 및 학과 선택 시, 그 교육수준에서 진출 가능한 직업, 소득,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은 직업의 개요, 필요한 교육훈련, 고용 및 임금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하여 직업정보서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전문대학·대학교 졸업생의 학과별 진출 직업, 소득수준, 학과 전망 등을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정보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학력수준,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교육 및 학과 선택 시, 그 교육수준에서 진출 가능한 직업, 소득,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등 단계 학생에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업을 선택·결정하고,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한 필요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대학 및 대학 단계의 학생에게는 졸업생의 진출직업, 취업률, 임금수준 등의 노동시장 정보와 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의 발간은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경력, 직업선택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정보체계의 기초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나. 인적자원 정보 기초통계의 정비 및 강화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은 직업·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교육 통계,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

행 과정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의 체계적인 수록을 목표로하였다. 따라서 관련된 많은 통계자료들이 점검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사들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적자원과 관련된 기초 통계들이 정비되고 강화되었다.

먼저, 인적자원의 주요 공급처인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학과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됨으로써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할 수 있는 분석 툴(tool)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 학과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전문대·대학 졸업생 추적조사」, 「전문대·대학 재학생의 희망직업조사」 등이 우리나라 처음 실시되었다.

2002년도 9월에 실시된 「전문대·대학 졸업생 조사」는 2001년 2월 전국의 전문대·대학 졸업생(이공계 대학원을 포함) 8,000여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과정,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과정, 진출 직업, 임금 수준 등 이행의 성과 등을 파악한 체계적인 조사로 인적자원 정보 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기초통계 중 하나이다.

이러한 기초통계의 정비와 강화 과정은 산업계 수요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정보가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미래의 직업세계 2003」 발간 과정을 통해 밝혀진 인적자원 관련 통계의 미흡한 점은 이후 「미래의 직업세계」 발간 또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 보완될 것이다.

「미래의 직업세계」는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 및 노동시장 정보를 가공·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래의 직업세계」발간 전담연구기관의 지정되었고, 연구진들이 구성되어 졌다. 또한, 생산된 관련 정보들을 원활하게 유통시키기 위해 책자, CD-롬, 인터넷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미래의 직업세계 2003」책자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배포되었다.

다. 인력수요전망과 주기적인 가공 및 보급 체계 구축

「미래의 직업세계 2003」에서는 부분적으로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이 이루어 졌다. 직종 소분류 수준에서 계량적인 기법을 통해 전망이 이루어 졌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분류 수준의 직종에서 전문가 또는 재직자들의 질적인 전망들이 포함되었다. 이들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 자료는 개인 또는 교육기관에 대해 신호(signal)기능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향후에는 보다 신뢰성 높고 세분화된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 전망이 「미래의 직업세계」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의 발전 또는 정책적 변수에 따라 미래의 인력 수요는 변화한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화된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피드백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미래의 직업세계」는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 및 노동시장 정보를 가공·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의 직업세계」발간 전담연구기관의 지정되었고, 연구진들이 구성되어 졌다.

또한, 생산된 관련 정보들을 원활하게 유통시키기 위해 책자, CD-롬, 인터넷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미래의 직업세계 2003」책자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배포되었다. 

